

#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7. 2. 8.(수)		
배포일	2017. 2. 8.(수)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기획처	문의	기획처 홍보팀

## 서울대 교수 640명,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해제 촉구 서명

- 640명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학생들의 행정관 점거 해제를 촉구 호소문을 2월 8일(수) 오전 점거 학생들과 대학본부에 각각 전달하였다.
- 호소문 서명은 지난 2월 2일(목) 오후부터 시작되어 7일(화) 24시까지 진행되어 전체 2,164명의 교수 중 약 30%에 해당하는 640명이 참여한 것이다. 일주일도 안되는 짧은 기간과 동계방학이라는 점에 비추어 전체 교수 중 약 1/3 인원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은 행정관 점거 해제를 통한 학내 갈등 해소 및 행정업무 정상화 등이 절실하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이번 서명에 앞서 서울대 평의원회(1월 31일)와 교수협의회(2월 3일)가 행정관 점거사태 해결 호소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직원노동조합도 2월 3일(금) 호소문을 전달하며 학내 사태 정상화를 촉구한 바 있다.
- 한편 이준호 학생처장은 2월 7일(화), 8일(수) 이틀간 학생들이 점거중인 행정관 앞에서 본부 점거사태의 평화적 종결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가졌고, 2월 9일(목)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점거 해제 호소문 및 서명 교수 명단

## 본부 점거 농성 사태 해결을 위해 호소합니다

시흥 캠퍼스 건설을 위한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학생들의 본부 점거 농성 사태가 만 4개월에 이르렀지만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상 전례가 드문 이 불행한 갈등 앞에서 우리는 대학 당국과 점거 학생들 각각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교수들이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맡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대학 당국과 점거 학생 모두가 학교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흥 캠퍼스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균형 있고 냉정한 인식 위에서 대학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함께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 명의 총장 아래 추진되어 온 시흥 캠퍼스는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이 사업이 충분한 학내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지난 몇 년간 학내외에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의 폭넓은 공감대가 부족한 가운데 작년 2016년 8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실시협약 체결로 되돌리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 사회의 반발이 점거 농성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점거 학생들은 시흥 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물러설 수 없는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학생들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시협약을 철회한다면 서울대의 명예와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부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거 농성은 당장 신입생 입학과 새 학기 준비 등으로 바쁜 대학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거 농성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더 건설적인 방안을 고민할 때입니다. 지난 1월 26일 성낙인 총장은 징계를 위한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총장이 약속한대로 주요 기구에 참여하여 학교의 중대한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얻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낙인 총장과 대학 당국 역시 젊은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과 사심없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상호 신뢰와 소통의 부족입니다. 앞으로 탄탄한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 위에서 시흥 캠퍼스를 추진하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 약속 위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할 기반이 마련된다면, 징계 문제 등 다른 어려운 사안들도 차분하고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점거 지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2월 9일(목)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교학상장의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우리들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젊은이답게 한층 멀리 내다보는 담대한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합니다.

성낙인 총장과 대학 집행부 교수들에게 호소합니다. 서울대라는 한국 최대의 고등교육기관을 이끌면서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슬한 난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과 대학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교육자로서 끝까지 인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2011년에 발효된 법인화가 초래한 갖가지 시행착오와 취약점을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의 교육기관다운 자세만이 더 나은 서울대학교를 건설하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뜻하지 않은 그간의 무관심을 반성하면서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찾을 것을 다짐합니다.

대학 당국,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건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17. 2. 8.

본부 점거 농성 사태를 우려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640명. 명단 별첨)

### <서명자 명단> (2월 2일-7일)

강창우, 권오영, 권혁승, 김건태, 김기현, 김명환, 김보민, 김상환, 김정희, 김종서, 김주원, 김창민, 김창섭, 김태환, 김현균, 김희숙, 남동신, 노명호, 문중양, 민은경, 박종소, 박지향, 박찬국, 배영수, 송미정, 송용준, 신은영, 신혜경, 안병직, 안성두, 안지현, 유요한, 윤상인, 이강재, 이남인, 이만기, 이상찬, 이석재, 이선복, 이성은, 이영목, 이재영, 이정훈, 이종묵, 이주형, 이준정, 이해완, 이현희, 임호준, 임홍배, 장소원, 정병설, 정항균, 주경철, 한성일, 허남진, 황선엽, 한정숙(이상 인문대학), 강원택, 구양미, 구인회, 권숙인, 권현지, 권형기, 김병연, 김석호, 김용창, 김은미, 김의영, 김재영, 김주형, 김청택, 김홍중, 박명규, 박성우, 박원호, 박정재, 박주용, 박찬욱, 배은경, 서이종, 손정렬, 송호근, 신범식, 신혜란, 안도경, 안상훈, 양승목, 오명석, 유근배, 유희림, 윤석민, 이건학, 이봉주, 이옥연, 이은주, 이재열, 이재현, 이정민, 이준환, 이철주, 이훈진, 임경훈, 장경섭, 장덕진, 정진성, 조동준, 조흥식, 최승주, 하정화, 한규섭, 한신갑, 홍기현, 홍석경, Sowon Hahn(이상 사회과학대학), 계승혁, 김명환, 김기웅, 김상우, 김병문, 남성현, 노유선, 박록진, 박정우, 박철환, 서정쌍, 성노현, 손병주, 손석우, 신용일, 안진호, 오병권, 오희석, 유재준, 이강근, 이건수, 이동환, 이상훈, 이일하, 이종섭, 이탁희, 이형목, 임요한, 임채영, 장원철, 정구흥, 정연준, 정해명, 조양기, 최무영, 허원기, 홍성욱, 홍순혁, 황점식, 심민섭(이상 자연대학), 강승완, 김성재, 김정은, 박연환, 박현애, 방경숙, 서은영, 이명선, 이인숙, 정재원, 채선미(이상 간호대학), 강성춘, 김수옥, 박철순, 오정석, 장정주, 조승아(이상 경영대학), 강유, 강태진, 고승환, 권태경, 김건희, 김광우, 김규홍, 김기범, 김낙완, 김남수, 김도희, 김민수, 김선, 김성재, 김성준, 김성철, 김수환, 김영규, 김영오, 김용환, 김장주, 김재영, 김재정, 김재필, 김종원, 김지홍, 김진영, 김태완, 김현진, 김형준, 김호영, 나용수, 남상욱, 문수묵, 문일경, 민경덕, 민기복, 민동주, 박근수, 박남규, 박세웅, 박용태, 박종래, 박종우, 박준범, 박찬, 박하영, 박형민, 백윤흥, 서경덕, 서용석, 서진욱, 설승기, 송성진, 송한호, 신광선, 신영길, 심병효, 심형보, 안경현, 여명석, 여재익, 염현영, 윤군진, 윤용태, 윤제용, 이건우, 이경무, 이경수, 이경식, 이병호, 이상구, 이수갑, 이승종, 이신형, 이우일, 이윤우, 이재욱, 이정학, 이종수, 이종찬, 이종협, 이종호, 이종호(B), 이창희, 이철호, 이혁재, 장우진, 전국진, 전누리, 전봉희, 전석원, 정교민, 정덕균, 정운찬, 정충기, 정현교, 조규진, 조동일, 조재열, 조형규, 차상균, 차석원, 최기영, 최만수, 최성현, 최종근, 최진영, 최희동, 하순희, 한무영, 한지숙, 현택환, 홍성걸, 홍성수, 홍용택, 황원태, 황철성, Bernhard Egger, Srinivasa Rao Satti, Takuji Oda(이상 공과대학), 이현수(공학전문대학원), 김도만(국제농업기술대학원), 김태균, 박철희, 신성호, 이근, 정종호, 조영남(이상 국제대학원), 강규석, 강문성, 고희종, 김기석, 김기선, 김도순, 김민균, 김성배, 김정한, 김진모, 김태일, 김학진, 김한호, 나승일, 류영렬, 박은우, 박일권, 박필선, 백남천, 백명기, 서진호, 손영환, 손정익, 송인홍, 양태진, 윤철희, 윤혜정, 윤희연, 이기훈, 이상기, 이석하, 이성우, 이시혁, 이은진, 이인복, 이인원, 이전제, 이찬, 이학래, 이희재, 임상준, 장판식, 정주상, 정진철, 정철영, 조성인, 최수정, 최영진, 최영찬, 최원, 최윤재, 최인규, 최홍림, 하남출, 허진희, 현진호(이상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성희, 김정희, 민복기, 신하순, 이순종, 이용덕(이상 미술대학), 고태수, 김건식, 김도균, 김복기, 김종보, 김화진, 노혁준, 박은정, 박정훈, 박준, 윤지현, 윤진수, 이계정, 이근관, 이봉의, 이원우, 이재협, 이철수, 이효원, 장승화, 전상현, 전종익, 정금식, 정순섭, 정인섭, 조국, 조흥식, 천경훈, 최계영, 최봉경, 한인섭(이상 법학전문대학원), 김선영, 김성균, 김호,

백도명, 이기영, 이태진, 정효지, 조경덕, 조병희, 조성일, 조영태, 최경호(이상 보건대학원),  
 권오남, 권오현, 김기한, 김덕수, 김서령, 김선진, 김연수, 김종철, 김진하, 김찬종, 김창대,  
 김태웅, 김희백, 민병곤, 민현식, 박경애, 박동열, 박성혁, 박재범, 박평식, 서기원, 소영순,  
 송옥, 송진웅, 신종호, 안현기, 오선영, 오현석, 유준희, 윤여탁, 이경화, 이미나, 이시내,  
 전상학, 정창우, 조영달, 최변각, 최승언, 최영기, 최의창(이상 사범대학), 권영혜, 김성민,  
 김소연, 나종연, 남윤자, 박정희, 박혜준, 여정성, 유효선, 이강이, 이유리, 이정은, 전재훈,  
 진미정, 최현자, 하지수, 황금택(이상 생활과학대학), 권혁준, 김대용, 김용백, 류판동, 박재학,  
 서강문, 신남식, 우희종, 윤여성, 윤화영, 조제열, 한호재, 황인구(이상 수의대학), 김상건  
 (약학대학), 광노준, 권가진, 김상은, 김연상, 김종효, 박원철, 이강원, 이교구, 이동수,  
 LEE HYEONG KI(이상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박종화, 전상직, 정태봉, 최희연(이상 음악대학),  
 강대희, 강병철, 강형진, 고재성, 고정민, 광철, 구자록, 구자현, 권오상, 김경환, 김규한,  
 김기범, 김덕겸, 김동완, 김명환, 김병관, 김상완, 김상정, 김성준, 김수웅, 김승기, 김연수,  
 김옥주, 김용식, 김우호, 김재성, 김재용, 김정은, 김지원, 김지은, 김진태, 김치현, 김태우,  
 김한석, 김항래, 도영경, 류주석, 류지곤, 류호걸, 문경철, 문민경, 문제호, 민경복, 민승기,  
 박경석, 박경운, 박관진, 박광석, 박규형, 박기호, 박노현, 박도준, 박영주, 박정규, 박종완,  
 박종신, 변석수, 서정옥, 손환철, 송은영, 송정한, 신동훈, 신경환, 신좌섭, 신충호, 신형익,  
 양한광, 연제인, 오승준, 오윤규, 오종진, 우홍균, 유경상, 유철규, 윤기욱, 윤병우, 윤상웅,  
 윤정환, 윤종현, 윤형진, 이동섭, 이동순, 이동훈, 이원우(의과학과), 이원우(핵의학과), 이재협,  
 이정표, 이지연, 이태승, 이학중, 임춘수, 장성호, 장인진, 장학철, 전상훈, 전주홍, 정선근,  
 정숙향, 정승용, 정영섭, 정재민, 정진욱, 정진호, 정현수, 정현재, 정현태, 조구영, 조남혁,  
 조영민, 조주연, 지의규, 채종희, 최기영, 최민호, 최은화, 최진욱, 최태현, 최형진, 하일수,  
 하종원, 한서경, 한원식, 홍성태, 황영일, 황정민, Nam-Jong Paik(이상 의과대학), 김범수,  
 양일모, 장대익(이상 자유전공학부), 백승학, 황순정(이상 치과대학), 김성균, 김종철, 손원준,  
 이용무, 조병훈, 최순철(이상 치의학대학원), 구민교, 김병섭, 엄석진, 이승종, 정광호, 홍준형  
 (이상 행정대학원), 김태형, 오능환, 윤순진, 이유미, 이희연, 최막중(이상 환경대학원)

총 640명

- 본 서명명단은 2월 7일 자정까지로, 7일 16시 서명교수와 농성학생들간의 대화에서 농성학  
 생들이 “호소문 서명 중인 교수들에게” 호소하여 그 취지가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서 집계해서  
 마무리합니다